

맥쿼리 “코스피 6000 간다”… 반도체 반등·정책 ‘쌍호재’

메모리 반등, 반도체 이익 급증 전망
맥쿼리 “코스피 PER 낮아 저평가”
JP모건, 韓 아시아 최우선 확대국
밸류업·지배구조 개혁 정책 모멘텀
AI버블·실적변수 등 낙관론 경계도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4000선에 머물고 있는 한국 증시를 상대로 잇따라 ‘사라’를 외치고 있다. 증시와 가상자산, 금 가격이 동반 하락하는 이른바 ‘에브리싱 랠리’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에 쏠렸던 자금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증시로 흘러 들어간다는 분석이 바탕에 깔려 있다. 특히 내년에 국내 기업 실적이 본격적으로 회복된다면 증시도 바닥을 찍고 날개를 달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외국계 IB들이 한국 증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가장 큰 이유는 ‘이익성장과 정부 정책’에 있다.

◆“한국 비중 확대 하라”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맥쿼리증권은 지난 2일 발간한 ‘코스피 다시 포효: 6000으로 가는 길’ 보고서에서 “강한 이익 성장, 풍부한 유동성, 증시 친화적인 정부 정책에 힘입어 6000선에 근접할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한국 증시를 주목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것”이라고 전망했다.

맥쿼리증권은 자사가 커버하는 올해 증시가 보여준 랠리에도 시장의 주가수익비율(PER)이 14배밖에 안 된다면서 이는 “한국 증시가 실제 실적에 비해 고평가됐다는 점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특히 맥쿼리증권은 내년 코스피 상승

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할 것이라며 양사가 증시에서 차지할 순위의 비중이 52%, 순위의 증가분은 68%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맥쿼리증권은 “현재 우리는 역사상 최악의 메모리 공급난(crunch)에 직면해 있고 향후 2년간 공급이 원회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며 “메모리 가격 상승 여력은 상

당하고 시장은 아직 이를 실적 전망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맥쿼리증권은 이 같은 코스피의 강력한 초과 수익(outperformance)과 원화 강세 가능성을 고려할 때 개인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에 대한 비중을 축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도 ‘2026년 아시아 주식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을 최우선 ‘비중 확대’ 국가로 제시하며 강한 낙관론을 펼쳤다. 아시아 주식시장이 각국의 정책 지원과 유동성 확대, AI(인공지능) 관련 업종의 성장 등으로 ‘중간에서 강한 수준의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은 특히 비교 대상 국가 중 가장 높은 최대 31%의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전망했다.

JP모건은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지배구조 개혁을 추진하는 국가”라고 평가하며, 정부의 밸류업(Value-up) 프로그램이 기업의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지주사 할인 축소로 이어지며 코스피의 지속적 재평가(re-rating)를 유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IT와 반도체 업종이 내년 아시아 전체 이익 성장의 핵심 기여자가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한국 기업이 AI 인프라 확대의 직접적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섹터별로는 메모리와 함께 금융, 지주사, 일부 산업재(방산·조선·전력·망 투자 관련) 등에 대해 ‘비중 확대’를, 헬스케어 부문에 대해서는 ‘비중 축소’를 권고했다.

◆실적 등 확인해야

그러나 지나친 낙관을 경계하는 시각도 여전하다. ‘에브리싱 랠리’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AI) 버블’이 경제와 시장의 몸통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다. 김영익 서강대 교수는 내년도 명목 GDP 성장률을 4.3%로 예상한다면 적정 코스피 수준은 3500포인트라고 강조한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코스피의 급등이 내년까지 강세장으로 이어지려면 단기 실적이 아니라 구조적 이익 추세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며 “올해 4분기 실적 시즌은 기대를 현실로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이벤트”라고 했다.

코스피지수는 4일 전 거래일보다 1.07% 하락한 3993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지수도 0.77% 하락한 924로 마감했다. 코스닥은 장중 시가총액 500조원을 넘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금리동결 장기화… 채권형 펀드서 1.3조 이탈

국고채 금리상승, 채권형 수익률 둔화
주식형 펀드 한 주 새 7932억 유입
한은 매파 기조에 상반기 동결 전망

한국은행의 금리동결 장기화 전망에 지난 한 주 동안 채권형 펀드에서 1조원 넘게 자금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펀드 평가사 에프앤아이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국내 채권형 펀드 390개의 설정액은 104조5048억원으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과 비교해 1조3408억원 감소했다. 국내 주식형 펀드의 설정액이 증가한 것과 대조된다.

주식형 펀드 1053개의 설정액은 64조 1368억원으로, 지난 일주일 동안 7932억 원 늘어났다.

채권형 펀드의 인기가 식은 데에는 최근 국고채 금리가 오르면서 수익률이 낮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지난 일주일 사이 연 2.902%에서 연 3.022%로 12bp (1bp=0.01%포인트) 올랐다.

이처럼 국고채 금리가 오른 배경에는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장기간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자리하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4회 연속 동결이다. 그러면서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인하 기조’를 ‘인하 가능성’으로, 추가 인하 ‘시기’를 ‘여부’로 각각 조정했다.

이를 시장에서는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으로 해석하면서 대체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처럼 금리가 오르자 채권형 펀드의 수익률도 저조하다. 지난 한 주 동안 수익률은 -0.12%로, 주식형 펀드가 3.19% 기록한 것과 비교된다.

증권가는 금리가 당분간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연말에는 기관들의 북 클로징(장부 마감) 또는 손절 물량 출회에 따라 변동성이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경기 개선 기대감과 물가 경계심이 맞물리며 금리가 빠르게 안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신하은 기자 godhe@

금감원, 해외 부동산펀드 통제 강화 착수

전액손실 사태에 설계·실사 등 점검

금융감독원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해외 부동산펀드 전액 손실 사태를 계기로 설계·제조 단계에서부터 ‘투자자 우선 원칙’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4일 해외 부동산펀드를 주로 취급하는 6개 운용사 대표이사, 금융 투자협회 담당 본부장과 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실시한 설계·제조 단계 내부통제체계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투자자 우선 원칙’ 내재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은 “현재 투자자의 높아진 눈높이 및 변화된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업계 스스로 업무 절차 전반에 대해 철저하게 투자자 관점에서 재점검하고 시정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수탁자 책임 및 신뢰 회복 차원에서 마련된 최소

한의 기준인 모범규준을 지키는 시늉만 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표이사가 핵심 정보 제공을 위해 본인 책임 하에 직접 나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최근 해외 부동산펀드 설계·제조 단계 내부통제체계 실태점검을 실시했는데, 대상 발굴(딜소싱), 실사, 심사 등 주요 절차는 실제 운영 측면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범규준 시행 이전에 대비 주요 통제 절차를 내규에 반영하는 등 일부 진전도 있었으나 투자자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운영 측면의 노력은 대폭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평가다.

금감원은 개선방안으로 ▲설계점검 보고서 등의 펀드신고서 첨부 의무화 ▲해외 부동산펀드 핵심 투자위험 기재 표준안 마련 ▲시나리오 분석 결과 기재의 무화 ▲해외 부동산펀드 집중심사제 가동 등을 제시했다. /신하은 기자

“배당정책 구체화해야… 분·반기 배당 기재”

금감원, 배당공시 강화해 예측성 제고

앞으로 상장사들은 사업보고서에 배당정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분·반기 배당도 구분해서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기업이 배당에 관한 사항을 충실히 기재하도록 공시 서식을 5일 개정한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이 유가증권·코스닥시장상장법인 중 배당 성향 상위 100개사의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회사 배당정책 관련 사항을 원론적으로 기재하거나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 배당금 결정 요인을 추상적으로 기재하거나,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을 구체적인 내용 없이 ‘필요시 검토’로 간략하게 쓴 경우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2천529

개사를 대상으로 ‘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 제공 사항’도 점검했는데 분·반기 배당 정보가 부족한 사례가 중점적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을 ▲배당 목표 결정 시 사용하는 재무지표 및 산출 방법 ▲향후 배당 수준의 방향성 ▲배당 제한 관련 정책 등 소항목으로 구분하고,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서식을 개정했다.

또 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에서는 결산 배당과 함께 분기·중간 배당에 대한 내용도 기재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투자가 회사의 배당정책, 배당절차 개선 여부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투자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배당과 관련한 기재 사항을 충실히 작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하은 기자

미래에셋코어테크, 순자산 1조 돌파

AI·반도체 중심 유입 지속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래에셋코어테크 펀드의 순자산이 3일 기준 1조 90억원을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공모펀드 시장 전체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올 10월 이후 약 2400억원이 새롭게 유입되며 역행 흐름을 보여줬다. 단기 테마에 따라 자금이 빠르게 움직이는 일반 펀드와 달리, 꾸준한 성과와 명확한 운용 철학이 지속적인 유입세를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미래에셋코어테크 펀드는 인공지능(AI)·반도체·2차전지·인터넷·소프트웨어 등 국내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성장 업종에 집중 투자한다. 주요 편입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수페타시스, 대덕전자, 효성중공업 등으로 반도체 고도화와 전력기기·소부장 등 미래 기술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벤처 마크 없이 코스피를 참조 지수로 활용하는 액티브 전략을 구사하며, 단기 변동성 보다 장기 성장성을 우선한다.

미래에셋은 일찍부터 글로벌 성장 산업 분석 역량을 강화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구축해 왔다.

/허정윤 기자

LS증권

AI 수급분석 서비스

‘카운트플로’ 선보여

LS증권은 머신러닝 수급 분석 서비스인 ‘카운트플로’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카운트플로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데이터를 수치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구글의 텐서플로로 머신러닝 기술을 통해 분석 정확도를 높였고, 수급 강도를 점수로 알려준다. 투자자들은 카운트플로를 통해 장중 매수·매도 세력 변화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수급 강도의 상승·감소흐름을 파악해 주요 전환 시점을 예측 할 수 있다. 또 여러 종목의 수급 강도를 비교할 수 있어 포트폴리오 구성, 테마 대응, 단기 매매 등 다양한 투자 전략에 활용할 수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